



스물여섯번째 이야기

우리 한 가족

(부제: 보석을 캐다 보석이 된 사람들)



‘비오는 수요일 팀’이 이번에 만난 분들은 BEE KOREA 본부를 섬기시는 분들이다. 훈련선교사, 간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본부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살림꾼들은 눈에 안띄게 마련이다.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알게 모르게 수고가 많으신 우리 살림꾼들을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하였다. 역대 최강의 섬김이들이 상도동 본부를 훈훈하고 든든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Q1. 본인과 가족소개?

한준열목사(이하 한): 지난 2월부터 훈련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BEE사역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 손아영과 자녀 규현(남, 10세), 규은(여, 5세)이가 있습니다.

김성주간사(이하 김): 작년 말부터 근무했구요. 주로 재정부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 정진영과 24개월 된 아들 은찬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살구요. 현재 관악금천공동체 소속입니다.

박혜숙간사(이하 박): 올 봄부터 근무했습니다. 국내사역 위주로 섬깁니다. 오자마자 바로 5월에 결혼을 했고, 지금 새신랑 조원철과 함께 지냅니다.

김진주자매(이하 김진): 월수금 2시~6시에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년쯤 되었구요. 라구시리즈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김양수 권사님이 어머니세요.



한준열 목사님 가정

Q2. BEE KOREA에 오기 전에는?

한: 싱가포르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섬(나눔과섬김)교회, 생명의말씀교회를 섬겼습니다. 오후에는 별도로 국제일본교회에서 8년간 사역하기도 했구요. 나섬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아내를 담임목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가가 교역자 집안이라(작고하신 장인어른이 목사) 감사하게도 많은 이해를 받고 있습니다. BEE는 생명의말씀교회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간사님 가정

김: 건설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구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확정되지 못한 채로 지내온 편이었는데, 홀리스타 새벽모임을 계기로 코이카(국제협력단)를 통해 스리랑카로 파견나가기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아내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면서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되었고, 서로 선교의 비전을 확인하며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중에도 존경스러운 정도로 신실한 모습을 지켜나가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허리를 다치는 등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헌신했었는데 마침 BEE KOREA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박: 대학졸업 후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국어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학생시절부터 선교의 마음을 품어왔던 터라 터키로 선교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처음 세워진 기독교수양관에서 9년 정도 사역(기도/여성사역)하였습니다. 귀국하고 바로 올해 3월 BEE KOREA와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선임선교사의 사촌동생으로 7년 정도 알고 지냈지만 신앙이 없었던 터라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다. 하지만 2년 전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바닥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교제하게 되었고 지난 5월 은혜 가운데 결혼하였습니다.



박혜숙 간사님 가정



김진주 자매님 가정

김진: 중고등학교를 외국인학교로 다녔고 대학에서 문화연구 (Intercultural Studies)를 전공하였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같이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합니다. 현재 건강전도사 정주호님의 스타트레인에서 인턴을 하면서 내년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3. 본부에서 맡은 사역은?

한: 해외사역을 담당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요청을 접수하고 테이블 기도지 및 토요일모임 기도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과 아웃리치 팀의 사역보고서를 데이터화하고 있구요. 또한 항공권 결제나 비자처리도 담당하고, 때때로 해외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모두들 한 목소리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한세프!!! 역할임을 강조함^^ 본부 점심을 늘 창의적인 메뉴로 섬겨 주신다고 함.)



김: 재정부분을 맡고 있구요. 사무실 제세공과금 처리와 특히 선교사님들 후원금 정리 및 이체를 담당합니다. OBC 교재 관리 및 제본도 맡고 있구요. 자주는 아니어도 건물 관리보조, 화초 물주기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세프님 보조로 식재료 공수 및 일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국내사역 담당입니다. 세미나개설 및 진행 관련 절차 등을 정리하고, 토요일기도모임 진행 담당자분들께 연락하고 총원하기도 합니다. 한목사님이 하시는 항공권결제 및 비자처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웹진에 토요일기도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진: 라구시리즈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권을 완료하였고 4, 7권을 진행 중입니다.

Q4. BEE에서 사역하며 느낀 점은?

한: 우선 BEE 안에 들어와 보니 세미나의 모든 과목들이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재생산, 제자화에 집중되어 있고 복음에 대한 강조가 뚜렷한 점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일반 교회에는 없었을까? 모든 신자들이 다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참 바쁘다... 모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우려될 정도로, 다 바쁘다는 겁니다^^

김: ‘간사’ 직책은 처음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은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와서 보니 뭔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간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알게 모르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재정을 맡다 보니 드러내지 않고 정성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섬김들이 좀더 알려지고 주위 분들에게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간식이 풍성한 사무실 이야기도 뽀 수가 없겠네요. ㅎㅎ (김간사님의 별명이 혹시 ‘리틀조’는 아닐까 했는데..... 역시나!!! 였다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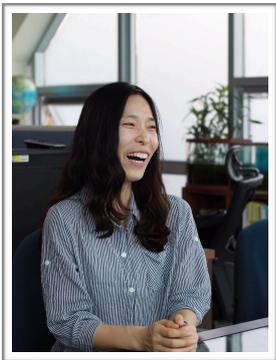
박: 예전부터 길거리선교사, 생활선교사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겨왔었는데, BEE에 와서 보니 다들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세미나인도 모두 다 훈련이 잘된 멋진 공동체입니다. 다만 차세대 사역자들이 그 자리를 이어간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진: 저도 BEE 공동체에 청년세대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지금 요셉청년부에 나가고 있는데 청년들에게도 BEE 사역이 많이 유익할 거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BEE가 흡인력이 약한 것 같아요.

Q5. 사역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은?

한: BEE 사역만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구요.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 BEE만의 배움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삶의 본이 됩니다. 특별히 선교교사님이 그러하시구요. 본부에 있으면서 생소한 일, 새로운 일을 배워가는 것(항공권구매, 인터넷 물품구입, 요리 등등)도 좋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출퇴근 시간(집이 화성, 왕복 3시간)인데, 싱가포르에 있다 온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있고 또 도착하면 반갑게 맞이하는 본부 식구들이 있어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김: 기뻐던 한 순간 보다는 소소한 기쁨들이 많아요. 특히 선교사님들의 감사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해야 했는데 상반기 온비아수련회를 다녀와야 했을 때입니다. 다행히 잘 정리되어서 오히려 수련회서 은혜도 받았고 아내도 잘 회복했습니다.



박: 출근 시작했을 때 오랜 선교활동 직후라서인지 몸이 아팠고 더구나 결혼도 준비해야 했는데... 본부에서 많이 배려해주시고(2주휴가)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몸도 잘 추스르고 결혼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 서로를 돕는 BEE의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건 없구요. 업무마다 배움의 과정, 훈련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항공권 구매할 때가 조금... ㅎㅎ

김진: 교제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게 좋은 점 같아요. 어르신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번역한 일 잘 했다고 칭찬과 격려 받을 때 좋았구요... 어려운 점은 출퇴근(분당)입니다. 또 사무실에서 겨울에 발이 시려 좀 고생했었습니다^^

Q6. 앞으로의 비전은?



김진: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일(운동)을 통한 선교 활동을 비전으로 품고 있어요.

박: 선교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는 한데, 얼마 전 가정으로의 부르심(결혼)이 있고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선교적 삶을 이루어 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부가 같이 온비아를 시작했는데 선교적 삶의 토대가 잘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김: 허리를 다치고 몸이 아파보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하나의 비전이구요. ㅎㅎ 얼마전 저희 부부도 온비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울의 삶이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하루하루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선교의 삶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제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통로가 되고 싶은 소박하지만 실제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한: 개인적으로 집안 통틀어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저를 통해 모든 집안 가족들이 그리고 자자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BEE 선교사로도 바로 서기를 바라구요. BEE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어를 더 능숙하게 잘하고 싶구요.

Q7. 나에게 BEE란?

한: 나머지 인생.

김: Savior (구원자).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헌신된 삶으로의 매개체가 되어주었습니다.

박: 살아있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계명을 실천하는 말씀공동체로 여겨집니다.

김진: 하나님과의 동행.

가까이서 만나 본 우리 살림꾼들은 알고 보면 포근하고 부드럽고 괜찮은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더 두드러졌던 점은 그 어느 인터뷰 때보다도 안정적인 분위기와 서로 간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가족 같았다. 이렇게 멋진 살림꾼들을 우리 회원들은 무리한 부탁으로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좀더 아끼고 사랑하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보석을 캐듯 조심스레 정성을 다하며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을 섬겨주시는 본부 섬김이들. 이들이 바로 보석임을 새롭게 발견한 하루였다. 본부 섬김이들께~ 핫팅!!! (글:김종영, 편집:이경주)

BEE 소식

-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성경통독이 9월 28일 끝났습니다. 매일 새벽 말씀 파일을 배달하신 조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함께 통독을 완료하신 많은 분들은 큰 은혜가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 사정으로 완독을 못하신 분들도 일정과 관계 없이 계속 통독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완독에 대한 작은 선물은 12월 11일에 있을 BBK 때 수여할 예정입니다.